日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 시정하라"… 韓 "상처치유 노력 보여라"

법원판결, 日 항소 안해 23일 확정
모테기 "국제법위반 유감" 새벽 담화
정부 "피해 당사자들 권한" 거부
文대통령 '곤혹' 신년회견 발언에
日외교가 "자산압류 없을것" 전망
양국 확전 피하며 교착 이어질듯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자 일본 정부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달 8일 내려진 판결은 일본 정부가 항소 기간인 2주 내에 항소하지 않아 23일 0시부로 확정됐다. 일본 정부의 시정 요구에 대해 외교부는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판결 확정 시점인 23일 0시에 맞춰 담화를 내고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국제법상 특정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권 아래 놓이지 않고, 한일 간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해결됐으며,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해결됐다는 점을 또다시 강조했다.

23일 외교부는 모테기 외상 담화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일본 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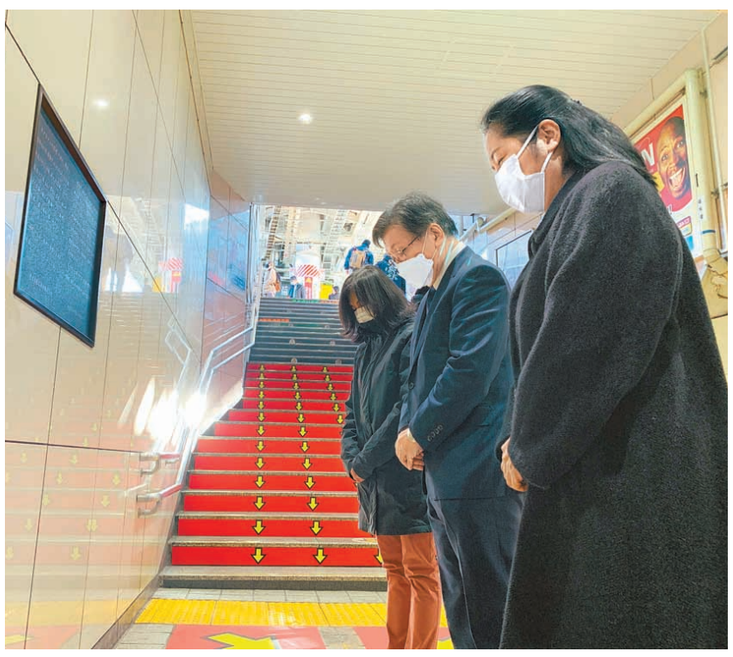
일본 측 요구를 한국 정부가 거부했지만 양국 모두 확전을 피하려는 모습도 감지된다. 모테기 외상은 담화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 법학과 교수는 24일 "한국이 일본 정부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일본이 보복 조치를 취하기는 힘들다"며 "양국 관계는 더 이상 악화도, 개선도 되지 않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도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실행되면 일본 정부가 강한 대항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23일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조금 곤혹스럽다"고 밝히면서 일본 정부 자산이 압류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본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일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일본 정부 자산에 대한) 압류는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외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외교부 측은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압류는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들어본 바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요미우리신문에 "법에 의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자세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ICJ 제소 의향을 내비쳤다. 아사히신문도 "당분간 ICJ 제소 카드를 쥐고 있으면서 한국 측의 대응을 계속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등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은 외국 공관 불가침 원칙을 정한 빈 협약으로 인해 압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원고 측 변호인 김강원 변호사는 "국내에 있는 (공관 자산 외) 일본 정부 자산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이 돼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권오혁 기자



20년전 의인의 헌신 기리며… 20일 오후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고(故) 이수현 씨를 추모하고 있는 야마모토 히로코, 아라이 도키요시, 나카무라 사토미 씨(왼쪽 사진 왼쪽부터). 이 씨의 숭고한 희생에 감동을 받은 일본인들이 이 씨 앞으로 20년간 쓴 편지 일부. 총 2300통이 넘는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이옥선 할머니 "원하는건 日 사죄… 돈 문제 아니다"

화상 인터뷰서 '강제동원' 재차 강조
확정판결 원고 12명중 생존 5명뿐

"일본이 우리 철모르는 사람을 끌어다가 잘못 맹글지(만들지) 않았냐.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자신들은 안 그랬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우리를 끌어다가 그렇게 맹글었는가."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 머물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94)는 24일 동아일보와의 온라인 화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할머니는 서울중앙지법이 8일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의 원고 12명 중 한 명이다. 이 판결은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23일 0시 확정됐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는 일본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정한 재판부 판단에 공감을 표하며 일본이 여성들을 강제 동원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이 할머니는 "우리가 왜 위안부가 됐겠어. 우리가 위안부가 (된 게) 아니야. 일본이 우리를 위안부로 맹글었어"라고 했다.

또 이 할머니는 "우리가 일본에 말하는 것은 사죄를 하라는 것이지 돈 문제가 아니야. 돈으로 따지만 1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이라고 해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끌어간 일이 없고 학대를 안 했다고 하는데,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바른대로 반성하라"며 진정성 있는 사죄를 촉구했다. 이 할머니는 "피해자들이 빨리 사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도 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으로 건너가 위안부 피해의 역사를 알리고 싶은 꿈이 있었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우리 역사는 뼈아픈 역사야. 군중에 널리 알려야 해. 그래서 우리가 끌려가던 나라가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라고 했다.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나눔의집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24일 본보와 온라인 화상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이번에 확정 판결을 받은 원고 12명 중 이 할머니 등 5명이 생존해 있다. 나눔의집에 따르면 이 할머니와 동명이인인 또 다른 이옥선 할머니 등 2명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한일 '징검다리' 이수현, 여전히 마음속에 살아"

내일 20주기… 日서 추모 물결
각계 기부로 장학생 1000명 넘어
추모영화 제작-기업 후원도 꾸준
"한일관계 악화, 마음 아파했을것"

20일 오후 1시 일본 도쿄 신오쿠보역 내 계단 벽 앞에서 묵념을 하는 일본인 3명을 만났다. 이곳은 2001년 1월 26일 오후 7시 15분경 선로에 추락한 일본인을 구하려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수현 씨(1974~2001·사진)를 기리는 공간이다. 세 사람은 그의 20주기를 맞아 26일 열리는 공식 추모식에 앞서 이곳을 찾았다.

이 씨가 생전에 다녔던 일본어 어학당 아카몬카이(赤門會)의 아라이 도키요시(新井時贊·71) 이사장은 기자에게 "20년간 한 번도 그의 이름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 직후 가장 먼저 경찰서로 달려가 비극을 알렸고 20년째 추모 사업도 이끌고 있다. 아라이 이사장은 "수많은 외교관이 이루지 못한 양국 관계 개선을 그가 혼자 힘으로 해냈다"고 평했다. 그는 당시 이 씨가 매일 오후 5시까지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며 "하필 그날 컴퓨터 수리 등으로 일이 늦게 끝났다. 정시에 퇴근만 했더라면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2002년 설립된 'LSH 아시아 장학회'에 꾸준히 기부하고 있는 야마모토 히로코(山本弘子·62) 씨는 "헌신과 배려에 국경이 없다는 것을 이 씨를 통해 알게 됐다. 그 가르침에 감사하는 뜻에서 줄곧 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마모토 씨는 "3년 전 딸을 이 씨의 모교 고려대로 유학 보냈다"고도 밝혔다.

이 씨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2년 설립된 'LSH 아시아 장학회'는 올해까지 누적 수혜 학생이 1000명을 넘는다. 이 씨의 기일을 잊지 말자며 일부러 1만2600엔을 내는 기부자도 있다.

감독 나카무라 사토미(中村里美·56) 씨는 이 씨와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가케하시(징검다리)'를 제작했고, 2017년 2월부터 일본 15개 지역에서 상영회를 열었다. 그는 "우리 마음속에 이수현이 살아 있다고 말하는 관객을 볼 때마다 뿌듯하다"고 강조했다.

세 사람은 "이 씨가 살아 있다면 악화된 양국 관계를 누구보다 가슴 아파할 것"이라며 이 씨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외에 신오쿠보역 운영회사 JR히가시니혼은 장학회에서 발간하는 회보에 광고비(1000만 엔·약 1억 원)를 지원하고 있다. 항공사 JAL 역시 매년 이 씨 부모님의 일본 방문 항공료를 내주고 있다.

26일 20주기 추모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예년보다 조촐하게 치러진다. 이 씨의 어머니 신윤찬 씨(71)도 처음으로 참석하지 못한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